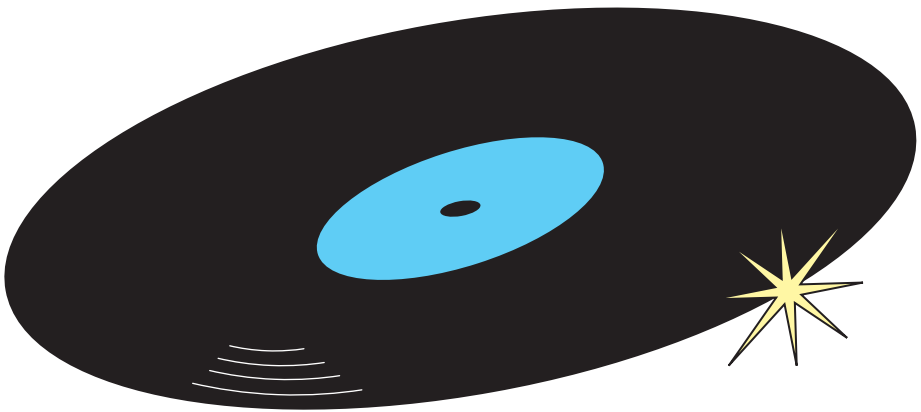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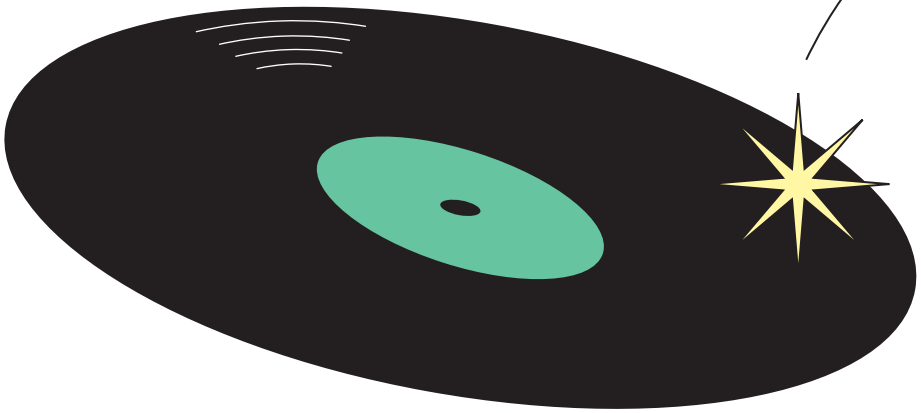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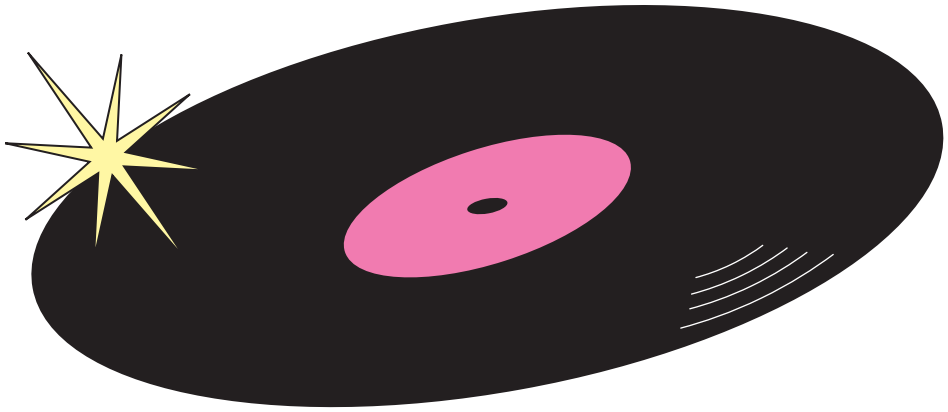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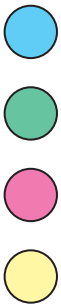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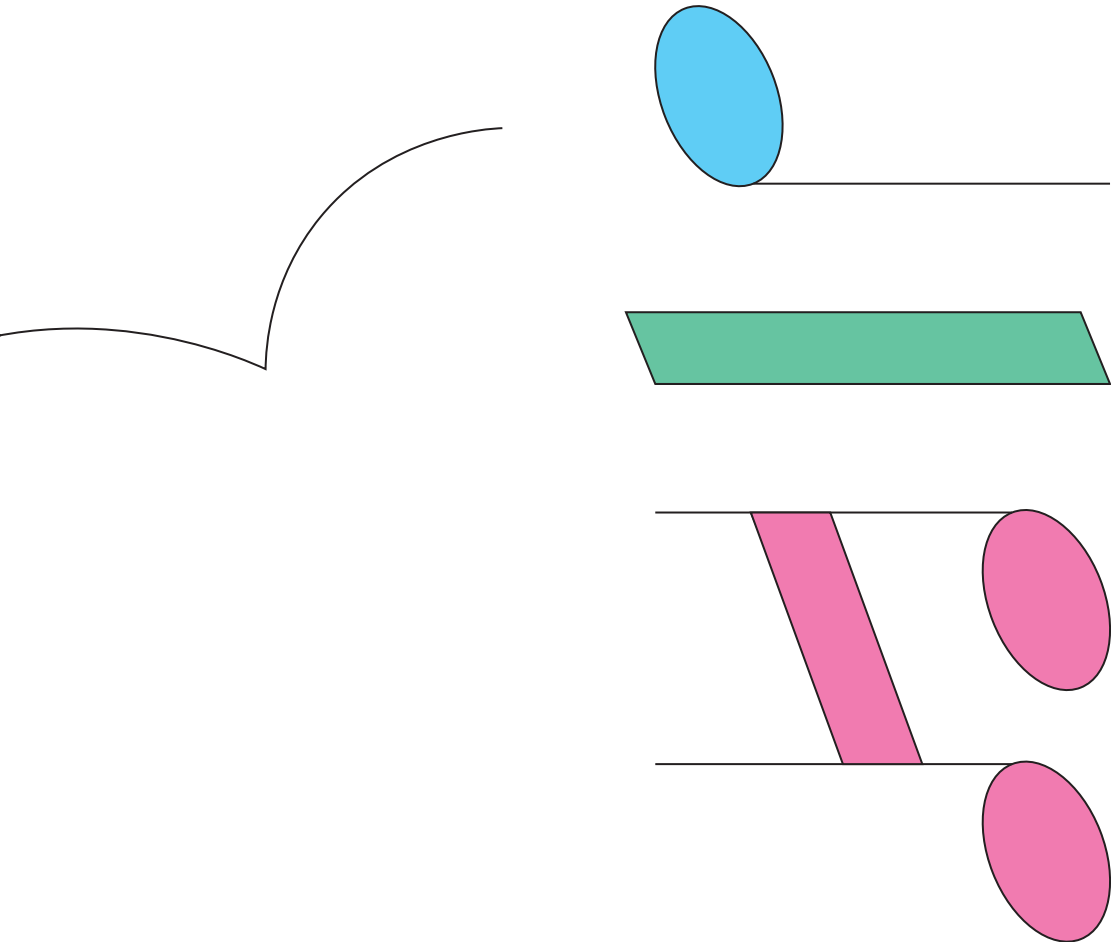


VOL. 52

인류의 조상이 직립을 선택하면서부터
힙(hip)은 역압의 대상이 되었다



LP로 철 지난 음악 틀면서 뭉치 뭉치 춤추면서



COVER ILLUSTRATION. 박보은

힙(둔부)의 직관적인 형태감인 볼록함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음표, 첼표, LP 그리고 꽃으로도 변모합니다.
힙에서 시작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원형 중심의 오브제에서 찾아보세요.
뎀치뎀치 fn.





임희정 <걸어간다> 2023, mixed media on canvas, 130.3x193.9cm



임희정 <꽃같이>

2023, oil on canvas, 60.6x60.6cm

임희정

주변과 자극에 민감한 성향에 비해, 별다른 것을 꽤 하고 있다.
이 모험 불씨가 꺼지지 않길, 더 바람을 맞으러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

길에서 만난 나의 할머니들

내 그림이 힙하대요.

“저 할머니 왜 이렇게 힙해?” 몇몇 관람객에게 들었던 말이다. ‘작업하면서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건데, 그런가? 힙하다니! 좋은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힙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절묘한 조화이다. 그래서 빈티지 패션이, 레트로 굿즈가 힙하고 할매카세라고 불리는 노포 맛집이, LP 바가 힙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진정한 힙스터는 내가 그리는, 길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맞는 듯하다. 일단 거대한 화면에 원색이 시선 강탈이다. 투머치한 화려한 패턴이 분산되어 있다. 산, 바다 등 유치하리만큼 직관적으로 그린 배경이 보인다. 인물들의 표정은 시크하게 무심하나 발걸음에는 기운 생동함이 있다. 조금은 귀여운 오브제들 - 손 선풍기, 오이, 대파 등 생활 속 흔적들이 보인다.(관람자의 의견과 나의 주관적 견해를 모아보면 이렇다) 또한 주어진 역할과 환경에 최선이면서 계속 나아가는 진취적인 삶, 재미와 열정을 추구하는 삶,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그 안에서 충족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림 속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은 그럴 것이다. 외면뿐 아니라 내면까지 힙한 나의 이상향이었다. 때로는 흔들리는 내가 의지할 버팀목의 대상인지도 모른다. 나도 그렇게 늙어가길 바라면서.

나도 힙해지고 싶어.

2019년부터 지하철역 부근에서 보이는 어르신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거침없는 모습이 흥미로워 드로잉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들에게 느낀 어떤 불편함을 극복하려고, 귀여운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성향인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페인팅 작업을 이어오면서, 불편한 감정을 왜 할머니로 풀게 되었나 스스로 들여다보며, 그 대상에는 완벽한 모성애에 대한 동경과 결핍, 두려움이라는 여러 감정이 녹아 있는 것을 느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나, 엄마, 할머니로 투영되어 있었고, 곧 나를 이해하는 방법인 것을 작업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예술은 결국엔 작품보다 작가가 남는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직 예술이라 하기엔 모자라지만, 그 과정에 막 발을 들였다 한다면) 내 그림이 힙한만큼 나도 힙하고 싶다.

엽

길에서 만난 나의 할머니들	04
임화정	

시선

아, 이 힙한 인류여.	08
오성은	
역사적 ‘힙’으로서 트랜스로컬	10
김만석	
인생 이모작기에 문화예술인으로 힙한 사람들	16
고영삼	

시절과 공간

부산 연극의 부흥기	20
이성규	
음악감상실 ‘무아’에서 ‘음악에’까지	24
박보은	

사람과 사람들

감각의 경계를 지우는 작업, 사운드 설치미술가 정만영	32
김혜민	
예술 아닌 것은 무엇인가	38
이하니	

지금_부산문화재단 15주년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내고 싶은 작곡가	43
이승은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부산문화재단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46
고윤정	
감만동 블루스	48
송봉근	
할머니의 손편지 사연 하나	52
김영숙	
세계 종합 예술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 다녀오다	54
김희선	
함께, 봄	58

너머

<파리지앵이 시원하게 말해주는 다이키리> 外	60
윤보성	

아, 이 힙한 인류여.

글. 오성은

인류의 조상이 직립을 선택하면서부터 힙(hip)은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양손의 자유는 그만큼 요통과 바꿀 만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이족보행으로 골반이 좁아진 인류는 뇌가 다 자라지 못한 말랑말랑한 태아를 낳아야만 했고, 이는 수렵채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화였다. 점차 농경 사회로 삶의 양식이 전환됨에 따라 주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선 채로, 전보다 더 많은 노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관절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치질 같은 탈장 역시 심각한 질병으로 출현했다. 심장과 동일선상에서 권위를 지켜오던 향문을 직립에 의해 신체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내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혈류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곰곰 살펴보자면, 우리 조상의 힙은 사족보행이었을 때부터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다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머리를 치키고자 하는 상승의 욕망이 직립을 선택하도록 부추긴 것은 아닐까. 머리가 높아지면 당연하게도 시선이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게 된다. 그러한 욕망이 사피엔스를 사람속(homo) 유일한 종⁰¹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건지도 모른다. 드높아지려는 인류는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 착취와 전쟁과 학살과 마천루 건설과 달 탐험 경쟁을 통해 현재에 도착해 있다. 내게 상류층 만이 누릴수 있는 호화로운 달나라 탐사 티켓이 주어진다면, 나는 유유히 그 티켓을 타인에게 건넬 수 있을까. 한 점으로 수렴되는 이 고도(高度)를 가진 것들의 위용으로 내 목은 어제보다 더 굽어지는 기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어쩌면 바로 저 티켓을 갈구하며 여태껏 굽어 살아왔다. 욕망을 향한 일차함수의 기울기만큼이나 나의 목과 허리와 마음이 굽어지고 있다. 나는 꼬리뼈의 통증으로 찾아가 동네 한의원에서 피를 뽑고, 약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하는 동안 무책임하게도 최초의 직립 인간을 닮아가는 중이다. 내 안에는 직립의 유전자, 힙보다 눈이 높은 유전자가 꿈틀대고 있다. 뜬치료를 하느라 힙이 뜨거워진다. 그래도 붉어지는 건 늘 두 뺨이다.

기실 우리가 이 봄의 테마로 삼은 힙(hip)은 허리계의 둔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세기에 출현한 힙스터의 용례에서 그 희미한 정의⁰²를 찾아 내는 게 타당하다. 1940년대의 흑인 문화에 등장한 힙스터는

01 달리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에렉투스 등 사람속 모든 종의 살해의 혐의를 받고 있다.

02 그만큼 힙에 대한 정의는 불투명하고, 바로 그 지점으로 인해 나는 인류의 직립보행마저 들먹인 것이다.

03 n+1, 『힙스터에 주의하라』 김세희 역, 마티, 2011, 참조.

04 그리고 노트에는 이렇게 쓴다. '키치 : 우연을 필연으로 합리화시키는 논변 긍정'

21세기에 들어와 주류 자본 문화에 저항하는 하위문화라는 의미와 그마저도 중산층의 소비문화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⁰³ 나는 단 한번도 힙스터인 적이 없었지만(힙스터의 전제 조건 1. 자신이 힙스터임을 부정해야 한다) 힙에 대해 떠올리는 동안 견디기 힘든 요통을 앓았다. 이 같은 우연을 필연적인 합리화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⁰⁴ 나는 소설가로 살아가는 일이 그 자체로 신선한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고, 요통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육체노동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의 시선은 (앞 문단에서 기술했다시피)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내게는 사실 최신의 경향(hip)에 대한 동경은 없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감각에의 성찰이, 아니 성찰을 욕망하는 어떠한 감각이 낯선 마찰을 빚고 있고, 나는 그걸 힙이라 부르고 싶다. 실상 힙은 직립 뒤에 숨은 위대한 신체 부위도, 주류에 대한 저항 의식의 또 다른 이름도, 히피(hippie)나 힙합(hiphop)에 대한 어원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음성적 기호도, 중산층의 놀이도구로 전락한 모순을 가진 딜레마도 아니다. 그저 힙은 우리가 굴러내는 허끝에서 공명한 일종의 소통이다. 힙 나는 그것이 나의 단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관통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흥미를 느낀다. 우리는 모두 저 단어를 통과하여 작품 한 점과 마주하게 되었다.

임희정의 <걸어간다>⁰⁵는 걸어갔다와 걸어갈 것이다 사이에 있는 현현(epiphany)이다. 무엇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대상의 출현이 이 봄에 있어 반갑고 고맙다. 돌이켜 보면, 처음 그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이 기운 까닭은 돌출하는 색감과 구조적 유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할머니 때문인 것 같다. 내 할머니의 허리 굽음과 할머니와 나의 추억 굽음과 내 할머니의 주름 굽음과 내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를 떠올릴 때의 미소 굽음과 할머니 집 앞 돌담길의 굽음과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 그러나 작품 속 그리 굽어 있지 않은 인물들에게서 찾아낸 굽음과 굽음 없음의 마찰이 평면도가 아닌 입체로 살아와 당혹을 전해주었다. 그가 만들어낸 인물들은 곳곳한 직립으로,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캔버스 밖으로 튀어 나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만 같다. 아니, 이미 바깥의 일상적 풍경이 그림 안으로 들어갔으니 되돌아 나온다고 해야 할까. 나는 거기에서 어떤 욕망이나 욕망의 시선이나 진화적 욕망이나 욕망의 진화를 엿볼 수가 없다. 오직 거기에는 소실되었거나, 소실되지 않은 어떤 상흔이 해맑게 새겨져 있을 뿐이다. 벚꽃보다 좋은 그림이다. 흐트러지면서도 투명하게도 걸어가는 작은 공명을 오늘의 힙으로 명명하여, 이젠 만날 수 없는 나의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다.

할머니여. 아, 이 힙한 인류여.

오성은

소설가. 『라스팔마스는 없다』, 『되겠다는 마음』 등을 썼다. OHSEONGEUN.COM

역사적 ‘힙’으로서 트랜스로컬

글. 김만석

트랜스로컬은 일종의 접촉지대다.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치며 영향을 주고받는 각축장, 때로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무언가가 창출되기도 한다. 마치 근대화를 지나며 명태와 명란이 보여준 변화상처럼 말이다.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개념을 수렴, 융합해 진정한 ‘힙’을 실현해온 부산의 트랜스로컬을 살펴본다.

부산에 관한 외국어 표기는 여러 차례 변경되어왔다.

Fusan에서 Pusan으로 그리고 지금은 Busan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행 경험이 있다면 종종 Pusan이 아직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P로 시작해 B로 정착한 바 있다. 표기의 변화가 단순히 '표현'의 차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F—P—B로의 변경을 그저 이행해왔다가 아니라, 각각의 부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F의 부산이 있고 P의 부산이 있으며 그리고 B의 부산이 있는 셈이다. 이 부산들은 일정한 간극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뒤섞이고 엮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F의 부산에서 이루어진 음식의 교차는 서로 다른 방식 아래에서 '발명'되어 온 사례를 들여다보게 만든다. 일테면 명태와 명란의 경우에는 '대구(大口)문화권'에 사실상 속해있었던 일본에 의해 재발명된 이후 일본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 음식의 유형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커피의 경우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한반도 사람들에 의해 재발명되어 향유된 것이다. 명태와 명란이 오랜 시간을 거쳐 일본어와 러시아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면, 커피는 가베, 가배, 가페차, 양탕국 등 다양한 번역어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연원한 음식과 서구와 일본에서 유입되어온 음식은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전파'된 것이 아니라 상호 '번역적 실천'으로 착근한 것에 가깝다.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이런 접근은 '원본'이나 '기원'의 문제보다 그것이 어떤 영향 아래에서 지역과 지역 사이를 '운동'/'변이'했는가 혹은 하는가에 더 집중하도록 만든다. 음식이나 식재료가 '정태적'인 것일 수 없다면 '접촉'의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양상들을 살피는 편이 훨씬 풍부한 이야기를 건네주기 때문이다. 가령, 아래의 이야기는 로컬이 품고 있는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실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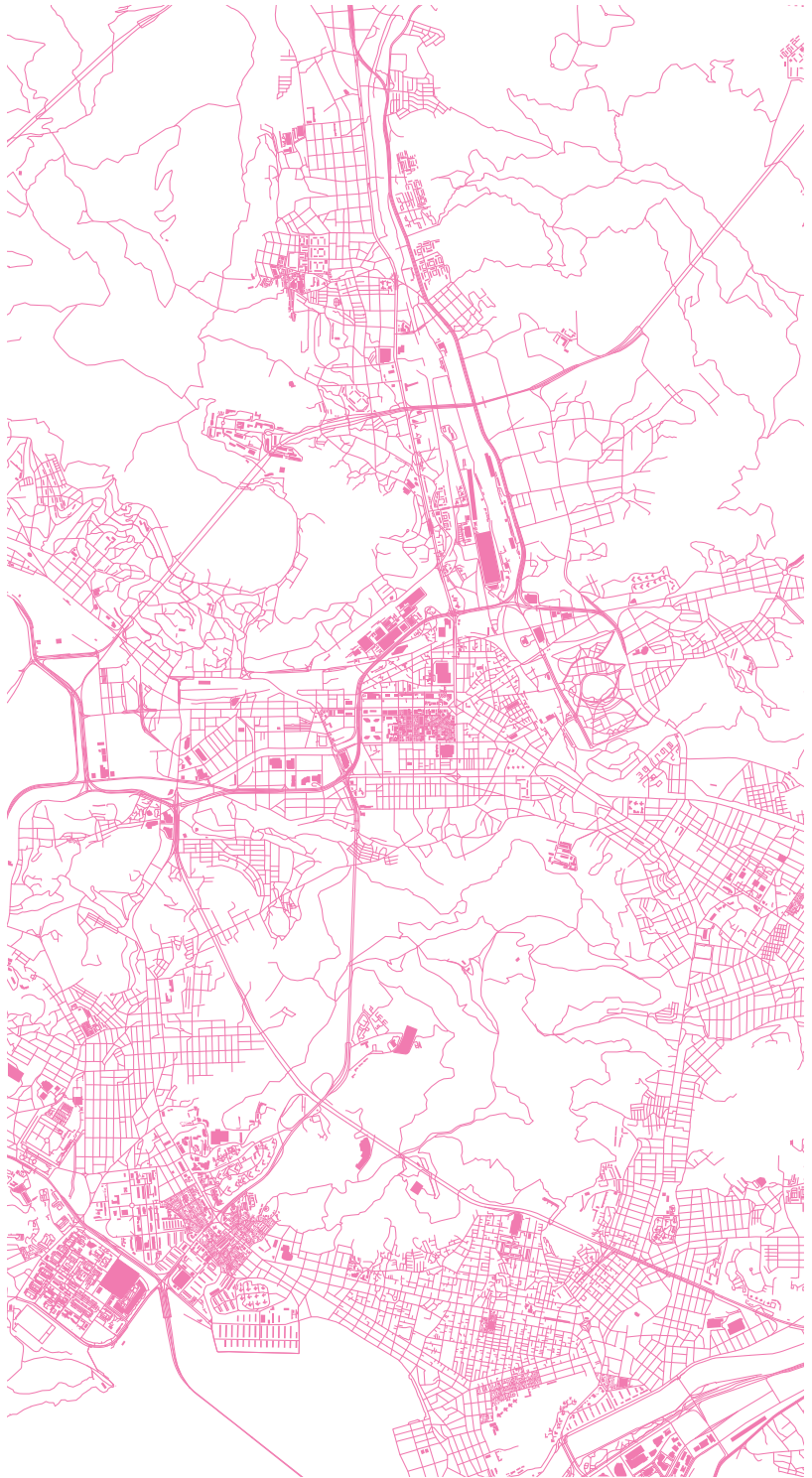
북조선화폐를 남조선에 유입시켜 남조선 경제를 교란시키는 악질선원 及(급) 이 사실을 탐지함을 기화로 그 선원에 협박하여 삼십여만원을 강탈 착복한 모청년단원이 드디어 거 팔일 경 부산역서에 일망타진되었다.

즉 본적 제주도 대정면 가파리 238 주소 부내(府內) 대교로 5가 156 선원 □□□(41) 본적 전남 무안군 □산면 우이도리 주소 부내 대교로 5가 156 선원 □□□(35) 본적 경주군 외동지면 □리 주소 아미동 2가 86 기관장 □□□(27)은 2월 10일경 공모하여 생고무 1□ 중유 30도람 「마신油(유)」 8도람 소주 2錫(석) □□ 99포 등 식가 300만원을 富榮丸(부영환)에 적재하여 남항 해안에서 출항하여 북조선 함남 신포항에 밀착하여 현금 149만원 干明太(간명태) 29작 명란 42樽(준)과 교환하여 3월 20일에 부산항에 도착하여 明太樽(명태준)을 밀매하는 것을 탐지한 주소 영선동 3가 632 모청년단 목도분단 검찰대장 □□□(24) 외 1명은 이 사실을 탐지□□ 기화로 부영환 선주 □에게 경찰에 밀고한다고 협박하여 30여만 원을 강탈 착복하여 소비 중을 부산서원에 탐지되어 일미 4명이 거 팔일부터 일망타진되었다 한다.

- 『밀수물자를 협박 강탈』, 《부산일보》 1948. 4. 14.

이 기사는 정부 수립이 임박한 1948년 4월의 정세 속에서 영도에 거주하는 세 명의 밀수업자와 한 명의 청년단원 그리고 부산경찰서의 경찰이 물고 물리는 드라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세 명의 밀수업자들은 함경남도 신포항에서 부산항으로 간명태와 명란을 가져오기 위해 생고무, 머신유(machine油), 소주 등을 가지고 가 교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원인은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명태와 명란은 함경남도 향포구(특히 원산만 일대)에서 난 것을 제일로 쳤다. 즉, 품질이 월등한 명태와 명란을 ‘밀수’하면 한 몫 챙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진행한 것이겠지만, 그러므로 함경남도산 명태와 명란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실패한 밀수담을 초과한다.



부산항과 신포항 사이에서 일어난 밀수 혹은 밀무역은 냉전 체제라는 강력한 교류 금지의 장막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일종의 '교류'의 한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패했으나, 다른 밀수꾼들은 성공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가 말이다(밀수는 '검거'되어야만 제 모습을 드러낸다).

본적지가 모두 다른 이 세 명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가 무더운 더위를 무릅쓰고 우리집에 보내 준 명란은 원산에 있는 H수산회사의 대냉동창고 처음으로 냉장 시험차 전해 12월에 집어 넣어 두었던 것인데 너무도 풍미가 좋아 회사 안에서만 먹을 수가 없어 한통을 보내준 그야말로 여름 더운 때에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진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 사실 그 뒤 몇 해를 두고 여름만 오면 것처럼 냉장하였던 명란젓을 찾아 보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부산 피난 당시에도 찾아 보았으나 구하지를 못하여 단념하고 말았는데 꼭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무더운 여름날에 그것으로서 식히 맥주를 맛보는 기회가 와 주었으면 좋겠다. [단기]4290[1957년]"

- 윤고종, 『명란젓』, 『쑥꽃 사어록』, 범조사, 1959. 221~222쪽. []은 인용자)

한편 윤고종이 이 글을 썼을 때는 부산 영도에 있던 피난민이 대거 속초로 이주를 했을 무렵이다. 실제로 속초시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인 자료 가운데 영도 풍경과 국제시장 대화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시기의 부산에 관련된 서사와 이미지는 부산 내부에만 있는 것일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영도 피난민들이 속초로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중단되어 있던 명태잡이가 속초에서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해방과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십여년의 기간 동안 후쿠오카에서는 부산의 '맛'으로 기억하고 있던 명란젓을 카와하라 도시오가 '카라시멘타이코'로 재발명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일국교가 다시 이루어지는 1965년 전후로 속초 등지에서는 일본식 제법으로 변형된 명란젓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중앙수산물검사소(영도)에서는 일본 홋카이도의 수산물검사소의 제조법을 검사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요컨대, 부산(F, P, B)에서의 식재료의 이동과 변형의 과정은 갈등적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자 로컬의 형질변화에 맞물려 있음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달리 말해, 일본인, 피난민, 향도이촌 혹은 도시유이민의 급증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된 부산의 내력과 이력은 고정된 정체성으로 ‘부산’을 규정하기보다 항상 새로운 역사적 조건과 부대감으로써 부산‘들’을 재구성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여러 역사적 장소와 경험을 혼종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면서 다른 로컬의 역사와 경험에 접속하고 연결하는 것이기도 했다. 오직 하나의 발전 회로만을 지고의 선으로 강제하는 지배적 논리가 차이를 차별로 위계화하는 과정이라면, 그 속에서 다종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합’이 나타날 도리가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들을 꾸려온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적 지층이 부산들의 미래를 안내해주리라.

김만석

2005년 조선일보 미술비평으로 등단했고 2018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반년간지 <문학/사상>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사적 해양문화론을 연구하고 있다.

인생 이모작기에 문화예술인으로 힙한 사람들

글. 고영삼

수명이 길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긴 수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심이다. 대략 55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도 최소한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하니, 과연 남은 5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감한 것. 해답을 찾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인생 이모작은 인생 첫 출발점과는 성격이 다른 데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직업을 선택 할 때는 부, 권력, 명예 등을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인생 이모작기에는 그런 것이 좀 적을지라도 스스로 보람 있으면 최고다. 그런데 그런 보람 있는 무엇을 어디서 찾을까? 필자는 한 언론사와 함께 앞서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 살펴보니 공직자, 금융인, 교사, 경단녀 등 종사자들이 사업가, 대중강연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중에서 문화예술계로 전환하거나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든 유형을 소개해 본다.

도자기여행 작가 조용준

조용준 작가는 인문학 강사이며 문화여행 도슨트로 도자기 문화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저술가 겸 강연자다. 그는 젊은 시절 기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 활동했으나, 퇴직 후 도자기 문화의 신비함에 매료되어 인생 이모작기에 도자기 문화 작가로 전향했다. 그는 이제까지 총 15권의 책을 냈다.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와 '프로방스 라벤더 로드'와 같은 여행인문학 서적을 시작으로, 특히 도자기 주제 책은 자그마치 7권이나 집필했다. 3권은 유럽 도자기 쪽이며 또 다른 3권은 일본 도자기 쪽을 맛깔나게 분석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제 도자기 문화 분야에서 독보적 아성을 구축했다. 작금 한국의 음식은 K-푸드라 하여 글로벌 문화화하고 있는데 이는 K-도자기 혁명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작가가 대단한 점은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책임에 따라 직장생활을 충실히 했고, 퇴직 후에는 현실 자아를 도자기 문화 전문가라는 이상적 자아에 잘 인도한 점이다. 직장생활 중에도 세계 60여 개국을 공부한 그의 도자기 집필 노력은 엄청났다. 그가 즐겨 말하는 '최소 10년의 불광불급' 교훈은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인생 교본이다.

마음치유 화가 장혜숙

올해 71세인 장혜숙 화가는 평범한 주부였다. 대학 시절 미술을 전공하였지만 결혼 후 자녀 교육에만 매진했다. 그랬던 그녀가 지난번에는 성파 대종사의 조계종 종정 취임식 때, 통도사에서 기념 설치미술전을 개최할 정도로 비상했다. 그녀의 인생전환은 뜻밖에, 봉사활동이었다. 자식들을 다 양육한 61세 때부터 지인이었던 상담전문가 김인숙 교수가 권하여 청소년보호관찰소에서 5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다. 그때 미술치료 상담법을 적용했는데, 미술이 꽉 막힌 사회에 치유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내친김에 동남아에 가서 한국문화도 알리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 대박 사건이 일어난다. 그녀의 그림이 거장 이우환의 눈에 띄었던 것. 그 인연으로 그녀는 일본 우에노에 있는 유명한 동경예술대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했고, 현재 불교계에서도 그녀의 화풍과 재능을 아끼고 있다. 장혜숙 화가의 인생 이모작은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단어를 생각해 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는가. 서러운 경단녀였으나 무욕의 봉사활동이 누군가를 감동케하여 인생의 행운으로 귀결된 사례 아니겠는가.

탱고 아티스트 최윤라

큰 도시의 장점은 무엇일까? 다양성이다. 역사적 깊이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가 착륙할 수 있는 개방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성이다.

부산에 탱고 스튜디오가 있다 하면 대부분 “정말로?”라고 반문하겠지만 정말이다. 서면 롯데호텔 뒤에 오픈한 대형 스튜디오 ‘아미고’는 뜻밖에 34년 동안 영어 강사와 영어학원장으로 활동하던 최윤라 씨가 경영한다.

그는 7년 전 취미로 탱고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매력에 빠져 아예 스튜디오를 개관해 버렸다. 필자가 방문한 날은 마침 세계적 마에스트로 장삐에로 갈디(G. Galdi)가 공연을 온 날이라 전국에서 탱친(탱고 동호인)이 140여 명이나 모였다.

화려했다. 탱고는 철저히 ‘소셜’이었다.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트는 광경은 축재였다.

그녀는 말한다. “내 안의 꿈이 춤을 추게 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다름없죠.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론다(Ronda)’를 지키며 스텝을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8년차 가수 최백호

가수 최백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데뷔 48년째로서 현재 74세인 그는 지금도 현역이다. 특히 5~60년대 태어난 사람들에게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입영 전야’는 최고였다. 젊은 날의 인생사에 함께한 그 가수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음은 더없는 위안이다. 가수 최백호는 요즘 후배들과 협업을 많이 한다. 그는 “어쩌다 보니 후배 뮤지션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졌어요”라고 하는데, 워낙 겸손한 태도가 배어있지만 협업하는 이는 린, 아이유, 에코브릿지의 이종명뿐만 아니라 지코, 스웨덴세탁소, 이현, 정승환, 타이거JK, 골드, 조지와 더불어 부산에서 활동하는 친친탱고, 옐로온 등 일일이 들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전번에 ‘부산에 가면’ ‘바다의 끝’이란 노래를 발표했고 또 그의 인생 70대를 기념하여 ‘찰나라는 앨범을 발표했다.

부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가수 최백호는 젊은 시절 많은 방황을 했다.

그런데 그의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 대부분은 그 아픈 경험과 외로움에서 건져지는 음률이다.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오늘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워낙 거친 이 시절, 막막하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다.

출발선에서는 누구나

올드족, 올디락스, 금퇴족, 팬슈머….

요즘 신중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졌다. 새로운 소비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맞춘 용어도 있다. 일본의 세컨드 스테이지대학이나 열중소학교(熱中小學校), 우리나라의 50플러스와 같은 개념이다.

어쨌거나 전환기 지금은 초고령화 생활양식과 삶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동지다. 둘러보면 마음 나눌 사람, 양질의 정보를 주고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먼저 딛고 극복한 사람을 멘토로 삼고 동지가 되는 일이다. 그를 만나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은퇴 후 다시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동지를 만나면 고통조차도 버릴 것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도 도약의 밑거름임을 알게 된다.

한계를 넘어선 사람을 찾으라.

멘토가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고영삼

사회학자다. 부산광역시에서 출연한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신중년들의 인생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신문에 '고영삼의 인생이모작: 한번 더 현역'이라는 인터뷰 칼럼을 쓰고 있으며, <인생이모작포럼>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성규의 그때 그 시절

부산 연극의 부흥기

글·사진. 이성규



대학시절, 난 유진-오닐의 부두창고극장(프로빈스타운)을 꿈꾸었다.

부두창고를 몇 년간 헤매고 다녔지만 부두창고 창고는 대부분 보세창고라 임대료가 비싸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였다.

1983년 후배들이 중앙동 대로변 맞은 편(당시 KAL빌딩)에 빈 창고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가보았다. 빼적거리는 삭은 철계단이 있는 2층 목조건물이었다. 극장공사가 시작되어 건물 천장을 해체하는데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것 아닌가? 유리창에 '직업소개소'란 글이 있는 걸 보니 불법 직업소개나 인신매매하는 곳이 아닌지 의심되어 째째했다. 하지만 공사가 완성되고 보니 6.5m의 천장 높이에 단원용 숙소가 있는 멋진 극장이 되었다.

당시 돈 안 되는 연극 활동에 반대가 심했던 부모들을 피해 극장 골방에서 숙식하는 단원들이 몇 있었다. 그들에게 용돈을 주면 금방 다 써버리기 때문에(술) 나는 식권을 구입해 굶지 말라고 나눠주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또 굶고 있는 단원이 있어 채근을 하니 식권을 바꿔 막걸리를 마셨다는 것이다. 창단 공연은 내가 1979년(29살 나이)에 시민회관에서 '대박'을 쳤던 <고도를 기다리며>로 결정되었다. 연습 한 달쯤 되었을 때 MBC TV에서 연락이 와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촬영해서 방송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30분 분량으로. 의상에다 분장을 하고 소품을 들고 극장에서 MBC까지 (MBC는 중앙동에 있어 그리 멀지 않았다) 도보로 갔다.

중앙동에 웬 거지떼냐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연극 신인인 우리가 TV에 나온다니 신이 났다. 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갑자기 저 높은 곳에서 우레같은 고향 소리가 들리더니 "스톱,스톱 촬영중지" 시뻘개진 얼굴로 식식거리며 제작부장이 들이닥쳤다.

저 높은 곳, 밀실에서 모니터하고 있던 제작부장의 뇌리에 꽂힌 건, 한 인간(력키)의 목에 밧줄을 칭칭 감고 채찍을 휘두르는 '포쥬'의 장면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풍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였다. "도대체 이걸 무얼 상징하는 거야? 불온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고고'와 '디디'가 제작부장에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장님"하고 싹싹 빌었다. 재수가 없었던지 그 공연은 '고고'가 다리에 화상을 입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창단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F.아라발의 <건축사와 앓씨리 황제>가 선택되었다.

배우 2명이 각각 10억 이상씩 변신하는 실험극이었다. '앓씨리 황제'로 상징되는 문명인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프리카 원시림에 추락하여 야성적인 자연인인 '건축사'와 만나 일어나는 연극이었다. 무대는 건축사가 사는 움막 하나, 왕좌로 쓸 나무로 열기설기 짜맞춘 의자 하나였다. 폐목과 페비닐, 그물 등을 길에서 주워다 세트로 꾸몄다.

문제는 건축사가 앓씨리 황제를 잡아 먹었다는 설정의 해골이었다.

해골을 구할 수 없어 개빠다귀를 구해다 석고 봉대를 바르고 칠을 하여 그럴듯하게 조명을 비추어 처리하였다.

이 야만적인 행위는 그 뒤에 두고두고 단원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유럽 문명의 절망과 우울이란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쓰레기와 개빠다귀로 해결한 기가 막힌 공연이었다.

이 이상한 공연에 관객들이 희한하게도 솔솔참게 입장하였다. 그 원인은 극장 간판에 있었다.

아버지 밑에서 극장 간판 일을 거들었던 단원이 페인트로 칠한 연극 홍보용 간판을 극장 외벽에 붙인 것이다. 여기에 영화관이 있었나? 하고 호기심이 인 관객들이

연극? 연극이 뭐꼬? 하면서 몰려들었던 것이다. 관객의 반응도 괜찮고 관객 수입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획을 맡았던 단원이 도서관에서 가방 안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 가방까지 몽땅 분실했다는 것이다.

빛을 내어 마임 공연 등 몇 번의 작은 공연이 이어지다 단원들이 늘어나자

좀 더 큰 작품을 공연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작품이 <에쿠우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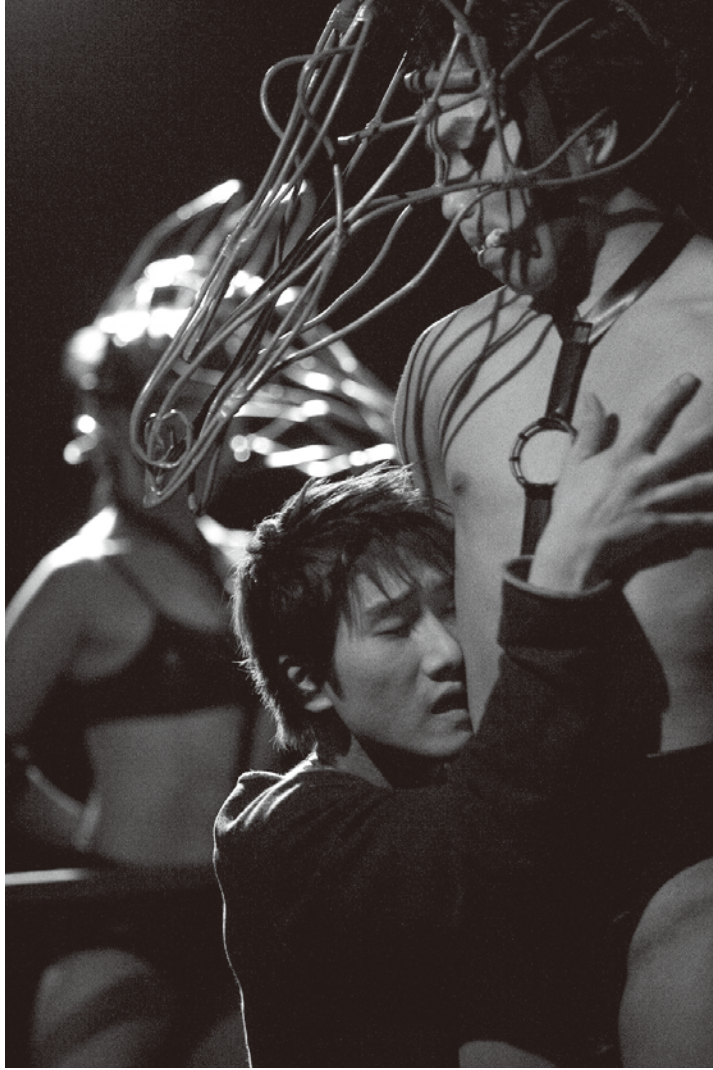
석달을 열심히 준비하여 막을 올렸는데 관객이 터져 나가 '대박'이었다. 한 달을 공연하고 난 뒤 또 한 달을 더 앵콜공연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다. 부산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중앙동 대로변 일부 건물들을 철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공연소식과 폐관 소식이 알려지자 KBS에서 아침 9시, 저녁 7시 뉴스에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안타깝다는 멘트를 덧붙여 방송을 내보냈다.

화면에는 회전 무대를 뿔뿔이 돌리는 건장한 말들과 말의 등에 올라 탄 알런이 강렬한 조명과 함께 절규하는 장면이 곁들여졌다.

극장 개관 땀 취급 않던 '문화뉴스'가 폐관소식을 동네방네에 올려 퍼뜨린 것이다.

이후 나는 가마골소극장(1986), 연당소극장(1995)을 거쳐 2005년부터 액터소극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후 1984(실천무대), 1986(열린무대, 자갈치) 등과 함께 성격과 방향이 분명한 소극장시대가 열렸고 그때가 부산연극의 부흥기였다.



2006 연극 <에쿠우스>, 액티스소극장

이성규

연출가. 현재 부두연극단 대표이자 액티스소극장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예술상, 봉생문화상,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음악감상실

‘무아’에서 ‘음악에’까지

글·사진. 박보은



나의 음악 감상은 미키마우스 MP3로 시작한다. 다운로드한 노래들을 MP3에 담아 듣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휴대전화와 선 없는 이어폰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바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2030세대에서 시작된 아날로그 열풍으로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어울리지 않은 조합처럼 보이지만 Y2K 패션⁰¹부터 그랜파코어룩⁰²까지. 시대가 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2030세대들은 LP바로 발걸음을 옮긴다. 실리카겔, 너드커넥션, 루시 등 LP바에서 듣는 요즘 노래들. 지금 우리 청춘에게 밴드가 있다면, 그때 그 시절에는 씨시봉이 있었다.

씨시봉, 한국 최초 음악감상실. 음악감상실 문화는 부산도 빨랐다. 잠시 피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은 전 세계의 UN군 병사들이 모여들며 재즈, 팝송 등 다양한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 일본, 대만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러 음악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항을 통해 여러 물자부터 밀수품들이 밀려 들어왔다. 이러한 환경 덕에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부산의 레코드 산업은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다.

다가온 7080시대. 다방 문화부터 시작하여 1970-1980년대의 남포동은 문화 예술 공간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음악감상실 '무야'가 있었다. 광복동 입구의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5층 건물 중 4층에 위치했으며, 청춘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던 공간이었다. 극장처럼 앞쪽 무대 방향으로 1인용 소파가 배치되었고, 뒤편에는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DJ 박스가 있었다. '무야'는 최신 음반, 빌보드 차트 등 최고급 음향 기기를 통해 최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음악감상실 입구에서 요구르트 혹은 코카콜라 값을 지불하고 음료를 챙겨 실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약 200평의 큰 공간에는 280석의 좌석이 있었고, 소파에 앉아 담배와 대화 없이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해야 했다.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시간대별로 DJ가 번갈아 가며 음악을 틀며 시 낭송, 디스코,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01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등장했던 패션 스타일

02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낸 듯한 스타일로 MZ세대들이 추구하는 '젠더 플루이드'와도 관련이 있는 패션 스타일



항구도시 부산은 팝 음악 수입이 빨랐고, 외국 선원들을 통해 외국 최신 음반을 사들여 '무야'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서울로 전파되었다. 부산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음악 트렌드를 이끌었다. 누구나 전성기가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엔 기억하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지나간 추억이 된다. 젊음의 표상이던 문화공간인 음악감상실은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TV와 음악 기기의 보급으로 사라진 공간이 되었다. '무야'는 남포동에서의 영업을 종료하고 부산대로 이전했지만, 오래 가진 못했다. 현재 '무야'가 사라진 공간에는 원더플레이스라는 대형 옷 가게가 자리 잡았지만, 누군가는 남포동에서 '무야'의 추억을 회상하며 또 다른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무야'의 흔적을 쫓기로 했다. '무야' 이후 남포동에는 '꼬맹이 무야'와 '음악에'가 생겼다는 기록을 기사⁴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남포동 뒤편 국제시장에서 시작된 가게 찾기의 여정은 '꼬맹이 무야'에서부터 시작했다. 다행히 '꼬맹이 무야'는 지도에서 검색이 된 덕에 디지털 힘을 빌려 쉽게 찾았지만, 문을 닫은 이후였다. 사거리 골목 모퉁이에 위치한 가게는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 외벽 간판도 그대로였다. 올라가는 계단의 'Chet Baker' 벽화와 입구 유리문에 붙어있는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꼬맹이 무야' 시트지와 김현석의 앨범 재킷 포스터도 볼 수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 공간은 공허하게 텅 비어있었다. '꼬맹이 무야'의 껍데기만 남은 공간은 '음악에'를 더욱 찾고 싶게 만들었다. '음악에'는 지도에 주소가 뜨지 않아,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에서 위치를 찾았다. 위치는 '오갱끼카레' 위층으로 구제 골목 중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진 않았고, 누군가 찍어 올린 가게 사진에서 찾은 연락처를 통해 사장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다.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고, 어둑한 밤 '음악에'를 다시 방문했다. 거리엔 '음악에'를 안내하는 큰 표지판은 없지만, 저녁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파란 간판이 눈에 띈다. 간판을 따라 도착한 건물이지만 '음악에'에 가기 위해선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3층까지 올라야 했다. 굽은 밧줄을 잡고 올라간 후, 입구 문을 열면 눈앞에 작은 DJ 공간이 등장한다.



03 부산일보, 청춘보다 뜨거운 두 음악열정, 2011.06.25

뒤편으론 수많은 LP와 CD 그리고 스피커가 반긴다. 안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옛 뮤지션들이 나오는 TV와 무대 그리고 기타가 자리하고 있다. 가게에서 들리는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 노래는 1970년대의 음악감상실에 들어온 느낌을 주었다. 공간을 둘러보며 '무아'와 '음악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차 한 잔을 내주시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 '무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정병호 님은 2001년 1월 9일, 국제시장의 한 건물에 '음악에' 공간을 열었다. 그가 처음 음악을 배우게 된 곳은 남포동이었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미화당 백화점 옥상 휴게실⁰⁴에서 음악을 틀며 음악을 알아갔다. 어릴 적부터 용두산 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무아'가 사라진 이후, 남포동으로 다시 돌아왔다. 2001년 문을 연 '음악에'는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음악에 빠져 살아온 그의 모습이 담긴 공간은 옛 명곡들로 채워진다. 그는 '무아'를 떠올리며 '판돌이⁰⁵'로 시작한 음악 인생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DJ로 데뷔하기 전, '무아'에서 근무하며 천장 형광등을 빨강, 파랑, 노랑 셀로판지로 감싸 직접 색 이름을 만들기도 했으며, 커피 머신이 고장 나면 거뜬히 고치기도 하는 등 공간을 정성스레 관리했다. 그는 음악도 사랑하지만, 공간을 가꾸는 일 또한 즐거웠다고 한다.

그는 '무아' 시절 기억을 되살려 가정집이었던 이 공간을 직접 꾸며나가고 있다. 그는 '무아'에서의 시간을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표현한다. '무아'에 근무하게 되어서 음악에 빠져 살 수 있었다고 그는 '무아'에서 그리고 '무아'가 사라진 이후에도 여러 장소에서 DJ를 하며 음악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을 준비했다. 음악과 함께 했던 전성기를 떠올리며, 음악에 빠져 살아온 인생을 '음악에' 공간에 담았다. 그는 몸과 정신이 허락하는 이상, 앞으로도 공간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록 처음에는 혼자 공간을 꾸렸지만, 손님들이 가져다준 CD와 LP로 음악을 쌓고 있다. 끝으로 나의 신청곡, '산다는 건 그렇게 아니겠니'를 들으며 공간을 나섰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진 모르지만, 내일이 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나날들을 기대하며, 음악이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보았다.

04 당시, 미화당 백화점 옥상에는 구름다리가 있어 용두산과 연결되었다.

05 LP판을 바꾸는 보조 DJ

산다는 건 그렇게 아니겠니
원하는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 여행 스케치의 '산다는건 다 그렇게 아니겠니' 中 -



박보은

로컬 생산자. 디자인 스튜디오 '로크 스튜디오' 운영.

부산에서 로컬 관련 기획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를 기록하며 써내려가고 있다.



임희정 <Amme Road(애미로드)>
2023,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감각의 경계를 지우는 작업

사운드 설치미술가 정만영

글. 김혜민 사진. 김주찬 영상. 유돈희



정만영 작가에게 감각은 곧
연결이다. 눈, 귀 같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끝없이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다.

미술관에 걸린 작품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문득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촉감이 닿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정만영
작가가 선택한 방식은 융합이다.
그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융합을
구현하고 있을까?



인터뷰 동영상



작가님께서서는 오랜 시간 지역을 대표하는 ‘사운드 설치미술가’로 활약해오셨어요.

사운드 설치미술이란 어떤 장르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영 설치미술인데 사운드(소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 장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까요? 저는 사운드를 활용해서 설치미술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 감각을 믹스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업에 들어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흔히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빨강이나 노랑 같은 색깔을 보면서 따뜻함이라는 촉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제 작품도 여러 감각을 함께 사용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눈으로만, 귀로만 감상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감각을 총동원해서 봐주셨으면 해요.

작품 제작과정이 궁금합니다.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리를 수집하는 과정,

이른바 ‘필드 레코딩’이 첫 단계라고요?

만영 네. 주로 자연에서 소리를 수집하는데,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들 위주로 찾아다닙니다. 순천만습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야외에서 소리를 녹음할 때가 많아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센 날은 특수장치(윈드실드)를 꼭 챙기죠. 그러면 바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필요한 소리만 깨끗하게 담을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작품 구상은 채집한 소리를 정리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채집한 소리를 어떻게 시각적인 부분과 연결시킬지가 관건이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시각적으로 선보일 오브제 제작에 착수합니다. 사이즈가 클 때는 외부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제가 직접 제작해요. 저기 쇠 깎는 기계, 3D 프린터 보이시죠? 아, 채집한 소리는 편집해서 사용해요.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주파수를 조절해서 높이는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충분한 설명이 됐나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자연의 소리를 수집한다니 무척 흥미롭게 느껴져요.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만영 전체 제작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원하는 소리를 담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우선 낮엔 거리가 북적이지 않아요. 차도 썩덜 달리고, 사람들의 생활소음도 많으니까 필요한 소리를 채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늦은 밤 혹은 새벽까지 대기합니다. 보통 한 장소에 마이크를 두고 오랜 시간 숨죽인 듯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편인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이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하면 또 녹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실제로 예전에 철새, 풀벌레 소리를 담아보려고 늦은 밤까지

우포늪에서 대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밤하늘 별을 찍으러 온 분들이 대거 몰려와서 작업에 애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제가 임의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헤프닝이 많아요. 대신 재미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북 부안에 있는 채석강 쪽으로 소리 채집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자꾸 딱딱따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개를 기웃거리며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니 바위에 붙은 따개비들이 숨 쉬며 내는 소리였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따개비가 내는 소리라니 예상치 못했던 발견이라 더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님이 지금과 같은 작품세계를 확립하는 데에 일본 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당시 ‘선단미술’을 접하게 되면서 매체 중심의 실험적 작품활동을 본격화하셨다고요. 선단미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만영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음악, 무용, 미술 같은 여러 장르의 예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는 거죠.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로 유명한 고(故) 백남준 선생님도 이 개념에 속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럭서스 운동(Fluxus)의 대표주자 중 한 분이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예술의 정의와 표현 범위를 확대시키셨죠. 당시 비평가들도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두고 어떤 장르라고 정의하기 어려워했다고 해요. 어떤 장르에도 속한다고 말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선단미술이 영어로 ‘Intermedia art’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에 있는 개념이라는 의미로 접두사 Inter를 붙인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시절 작가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장르를 허문 예술 분야인 만큼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만영 제가 Intermedia art 학과를 다녔는데, 교수님들부터 정말 다양했죠. 연극, 무용, 평론, 조각 등 여러 분야에 속한 전문가들이셨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작곡가로 활동하시던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었는데, 그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의 구성도 참 독특했어요. 미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극, 무용, 연주자 심지어 게임 프로그래머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갈 함께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됐고요. 인상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폭포를 그린 작품을 보고 마치 실제로 폭포를 마주한 듯 그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경험을 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바탕이 되어 비로소 지금의 제 작품활동의 배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간 비엔날레나 팀 프로젝트, 개인전 등을 통해 많은 작품을 보여주셨잖아요. 음반 발매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애정이 많이 가거나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만영 2014년쯤 지리산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당시 참여작가들의 작품이 상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에 전시됐었는데요, 제 작품은 남원에 있는 '실상사'라는 사찰에 전시됐었어요. 그때 제가 내놓은 작품 중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녹음한 소리가 있어요.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를 피하려고 급히 비닐하우스로 뛰어든 날이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비를 피하려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비닐하우스 안은 비가 소리가 되어(소리비) 내리고 있다는. 비는 안 맞았지만 그 소리가 제 피부를 적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느낀 감정은 말로 다 못해요.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정식으로 발매한 앨범 <소리비 실상사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들어보실 수 있어요. 7번 트랙(비를 피해 비닐 하우스로, 그리고 소리비)입니다.

어떤 소리인지 궁금한데 앨범이 전부 품절이네요? 재판매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하하). 최근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 요즘 GPS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만영 자연에서 얻은 데이터값을 이용한 사운드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때 GPS 기술을 활용하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사실 자연에는 많은 소리가 내재되어있거든요. 그 소리를 뽑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참여했던 <절영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의 영도 지형이 만들어지기까지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경계에 많은 소리가 담겨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장소의 숫자로 표현되는 위치 데이터(GPS 데이터)를 수집해보기로 했죠. 직접 해안가를 답사하며 데이터 값을 찾고, 길이 끊겼을 때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 라인의 정확한 GPS 값을 찾기도 했어요. 그 값을 토대로 컴퓨터 사운드 프로그램, 미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든 거죠. 요즘도 자주 바깥을 돌아다니곤 하는데요, 작년엔 주로 서해안 쪽을 찾아다녔고 최근엔 여수에도 다녀왔네요.

작품활동 외에도 다양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무대미술을 하신 적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만영 제가 설치미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무대공간을 꾸미는 일도 했던 적이 있었죠. 무용이나 연극, 국제행사 무대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써요. 부산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이 함께 하는 교육사업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거였죠. 아까 데이터값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드렸죠? 그것도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작업실 야외에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풍향, 풍속, 온도 같은 것들이요. 숫자 데이터니까 이걸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볼 수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게 참여하니까 저도 좋아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만영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니까 요즘 특별히 많이 고민하는 건 예술가의 역할이에요. 예술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시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시는 그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예술과 대중을 잘 연결시키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답을 내렸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분들도 재미있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욕심이 나서 더 열심히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상사 작업 시절의 정만영 작가 (사진제공 정만영)

정만영

사운드 설치미술가. 도시와 자연의 소리를 채집(필드레코딩)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GPS 데이터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연의 소리를 음원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단체전, 비엔날레 등에 참여해왔으며 <실상사 사운드 스케이프-소리비> 앨범을 정식 발매했다.

예술 아닌 것은 무엇인가

글·사진. 이하니



“할머니, 나 이거 잘 그렸지!”

“..... 그래, 근데 지금 니가 그림 배워서
나중에 뭐, 화가로 돈 벌끼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것들

위 대화는 내가 어느 주말에 취미미술 수업을 막 두고 나서, 할머니를 뵈러 간 김에 자랑스럽게 꺼낸 그림을 앞에 두고 얘기 나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그림 같은 거 말고 차라리 영어나 회사 다닐 때 필요한 걸 배워보라는 충언도 곁들이셨다. 수많은 취미 생활 중 나는 왜 미술이었을까? 그 시작은 나의 직업의 변화에서부터였다. 프리랜서로 지낼 때는 불규칙한 생활로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니 나름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어 매달 나가는 회비를 부담할 만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잠시, 회사에서 아무 영혼 없이 여덟아홉 시간을 보내는 일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온전히 나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는 고작 퇴근하고 나서의 몇 시간이었고, 그마저도 저녁밥 차려 먹을 체력도 안 되어서 허구한 날 배달 앱을 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찾게 된 취미미술. 지난날에 일일 수업으로 들어봤던 경험과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콤플렉스가 더해져 수업을 찾게 되었다.

처음 간 수업시간에 연필로 선 굵기를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즐거웠다. 근래에 한 일 중에서 가장 무용(無用)한 것이었는데, 이 '쓸모없음'이 주는 기쁨이 컸다. 그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선을 반복해서 그리는 일을 하면서도 '잘'하려고 하는 내 모습에 대한 알아차림 등은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했다. 그림을 그리러 가면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에도 알게 모르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친구와도 함께 그리면서 그림에서나 인생에서나 틀린 것 없이 그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 일상에 활기를 더했다.

예술 아닌 것은 무엇인가

사실, 할머니께서는 모르시지만 나는 이외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어느 주말이면 집 근처 카페에 들러 창밖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걸기도 한다. 꽃 피는 계절에는 꽃내음을 맡으러 나들이도 가고, 햇살 좋은 여름날이면 바다 수영도 즐긴다. 또한, 지난 애인이 그리운 어느 새벽에는 그가 좋아하던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하고, 그걸로도 안되면 시를 읊기도 한다. 이렇게 나의 일상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예술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면서 나를 새로이 알아가는 일이 예술이고, 나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해보려는 것도 내게는 그저 예술이다. 내 곁에는 수많은 예술이 있고, 나는 이를 오롯이 즐기기 위해서 그저 나를 미지의 세계로 내던질 수 있는 힘을 기를 뿐이다.

요즘 내가 머물고 있는 미지의 세계는 바로 춤이다. 그중에서도 쿠바 음악과 라틴아메리카 음악을 혼합한 음악에 맞춰서 추는 '살사(Salsa)'에 빠져있다. 10년 만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서 나와 살사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맛보기로 참여한 첫 수업 때, 음악에 맞춰 행복한 얼굴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춤을 추고 싶다'하는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춤을 시작하게 되어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나는 평생을 내가 몸치라고 생각해와서 춤과 가까워질 수 있으리란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나 오래 함께하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살사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때, 뭔가 모를 '해방감'을 느낀다. '나'를 잊고 그저 본능에 귀를 기울이는 감각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나는 더더욱 '글'과 '말'에 익숙한 삶이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이 무척 낯설었다. 몸의 움직임은 작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발견해가는 여정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유일무이하다.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니체가 “음악 없는 삶은 오류에 불과하다”라고 한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다.
나는 다양한 음악과 그 위에 얹어지는 다양한 춤을 통해서 나의 온전한 존재에 대해서 느낀다. 그렇게 넓어진 나의 세계에는 혐오가 없고, 집착이 없으며,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의 세계다.

내가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나의 할머니와 함께 햇살 가득한 봄날에 드로잉을 하고,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몸을 신나게 흔드는 것, 그리고 이를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것만을 바란다.

이하니

#자유 #사랑 #알아차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일을 지상 최대의 낙(樂)으로 여긴다. ‘나는 무엇까지 될 수 있을까?’가 여전히, 제일, 궁금한 사람.



지금, 부산문화재단 15주년

부산문화재단의 '지금'은
지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지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내고 싶은 작곡가



글. 이승은

想 생각할 상 時 때 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지새운 긴 고뇌의 시간, 많은 생각 끝에 뒤늦게 완성된 예술가의 생각과 시간을 지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신설된 <상시> 지원사업의 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문구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 시의성을 띠거나 창의적인 기획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소에 사회적 갈등을 음악적 언어로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은 데다 팬데믹 이후 예술계에서 더 가속화된 장르 융합의 경향 속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 의식도 들었던 만큼 쉽게 지원서를 쓸 수 있었다.

[개인과 사회의 교차점에서 작곡가, 소리 내다]라는 사업명은 작품의 주제나 배경은 작곡가의 사적인 경험에 기인하지만,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 문제에 기반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작곡가는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소리를 낸다는, 삶이 예술이 되고 싶은 작곡가의 의지를 담은 제목이다.

(필자는 자주 접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낯섦으로 분석하지만) 난해성으로 인한 현대음악과 청중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당수의 작곡가가 옛음악 어법을 택한다. 하지만, 관습을 답습하는 예술에 비판적인 필자는 상세한 곡해설 등으로 청중에게 작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식으로 소통을 꾀하는 편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개별 작품마다 직관적인 제목을 붙여 청중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작품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악곡의 진행이나 형식, 연주법 등을 명확하게 하였다. 총 다섯 개의 개별 작품을 주제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곡마다 개연성을 높이고 관객의 몰입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악기 소리가 관객석 뒤쪽에서 나는 바람에 처음 여러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작품,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을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을 오역 및 선전하는 일부 한국 기독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과 성 정체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제 의식을 담은 작품이다. 두 명의 연주자가 관객석의 모퉁이에서 시작하여 객석 여기저기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연주한다. 소리 재료로 ‘만인 선언문(2021.04)’을 프레이즈 사이나 끝부분마다 짧은 음가로 한 음절 또는 두세 음절씩 넣었는데, 그 메시지가 궁금해서 집중하여 단어와 문구를 조합하면서 감상했다는, 작곡가가 미처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많아서 흥미로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영상전문가 및 무용수와 협업한 작품으로 최석균 시인의 <빛나는 걸음>이라는 시에서 ‘개벽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벽으로 간 걸음이 있다’는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최소한의 모티브 반복으로 지난한 여정을 시각·청각적으로 나타내 고자 하였다. 음악은 하나의 리듬 패턴(장단)을 사용하였고 무용수도 같은 동작을(리버스 포함) 반복하며 양초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옮기는 행동의 반복으로 편집된 영상물이 동시 재생된다. 재료적 단조로움을 깨트리기 위해 두 가지의 이질적인 요소(가야금과 전자음원, 한국 무용수와 서양 영화의 한 장면)를 사용하였다. 다수의 관객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마침내 양초 불이 꺼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옮겨지는 장면)과 마지막 작품(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 둔다. 아니, 거부한다)에서 언급되었던 ‘완전히 깨뜨리지는 못해도 작은 균열을 만들어 냈다’라는 문구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보고 의도대로 전달된 점에 대해 감탄하기도 하였다.

<침묵은 동조다>는 수어 통역사의 조언을 받아 수어에서 따온 모티브를 음악과 영상 및 무용에 일부 적용한 작품이다. 처음 써보는 일렉기타의 편성과 무용수의 자의적 해석으로 순탄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일렉기타의 소리만큼 강렬한 비주얼과 무용수의 서사적 해석으로 관객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뉴스로 접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한 작곡가의 자기반성이자 부끄러운 고백으로 시작한 작업이다. 공연에 참석했던 수어 통역사의 감상평이 계기가 되어 현재 농(아)인을 위한 음악 작품과 배리어프리공연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구상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렸던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대담 형식으로 대본(text)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프로그램 중 가장 구체성이 강한 작품이다. 작년 여름에 발생했던 서이초 교사의 사회적 타살 사건을 다루면서 가정 양육 방식과 초등교육 현장

문제점을 대학교와 시간강사 처우 문제로 연결하였다. 작곡가이자 현 대학 강사인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2010년 고려대생 자퇴 선언문, 2012년 무상보육 실시, 2019년 강사법 제정, 2023년 글로벌 대학·지방대 통폐합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연주 시간이 거의 30분에 이르는 긴 작품임에도 관객의 몰입도와 호응이 컸던 작품이다. 특히, 관객 중 교육 대학원생들이 많아서였는지 작품의 화자가 대학생인 줄로 예상했다가 대학 강사임을 알게 되어 놀라웠다는 의견과 미래의 교사가 될 이들의 많은 공감과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상시> 사업의 완료 시기가 그 해 말까지였던 까닭에 선정된 날부터 공연날까지 거의 4개월 동안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나날을 보냈던 터라 지금도 번아웃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지만, 원고 청탁을 받은 후 작업일지와 학생들이 썼던 감상문을 읽으면서 이 공연에 대해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다. 유독 힘들었던 작업 기간 동안 겪었던 처절한 고독감과 연약함으로 신 앞에서 한없이 작은 피조물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예술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길 기도한다.

2차 면접 심사 때의 일화이다. 발표 시간 중 필자가 가장 힘줘서 했던 발언에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보시는 예산서는 작곡가의 혹독한 자기검열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가벼운 농으로 여겨졌을 이 발언은 필자에게는 꽤 진지한 문제이다. 작곡료를 책정할 수도 없었던 옛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작곡은 현실적인 노동이 아닌, 마땅히 감내하고 초월해야 할 행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심지어 작곡 협회에서도) 팽배하다. 작곡가가 노동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게 된 데에는 사회의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과 심사위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재단 측에게 음악 분야 중 창작 단체에 대한 꾸준한 의식 변화 노력과 더 많은 <상시> 지원사업을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이승은

곡 쓸 시간 없는 작곡가이자 교육 아닌 감정 노동하는 대학 강사.

STUDIO FRISCHE KLÄNGE(슈투디오프리셰클랭에: 신선한 소리 연구소) 대표.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부산문화재단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글. 고윤정



2017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런웨이 프로젝트>

2012년 부산문화재단에 입사해 2020년에 퇴사한 나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인 부산 영도구에서 영도문화도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단 시절을 떠올리면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많이 생각한다. 비예술계 전공자라 입사 후 문화예술 분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 실장님께서 믿고 건네준 공모 사업이 문화다양성 사업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는 '세상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힘'이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문화예술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도시문화환경을 만드는 것이 신났다. 속된말로 좋아서 영혼을 갈았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때 경험과 성과들이 나를 지금까지 향해하게 했다. 워킹그룹들과 장애예술을, 성평등을, 이주자에게 개방적인 환경을, 공간을, 사람을 찾았더라. 그 결과 부산시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도 만들어지고, 개막행사도 열어내면서 힘들지만 행복했다. 그렇게 배운 사업 경험을 정책으로 녹여낼 만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부산문화재단 비전2030'을 집필하게 된 계기였다. 물론 3개월간 독박 쓴다는 기분이라 불만이 가득 찼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도시를 넓게 보는 눈을 가져다 준 기회가 됐다. 당시 끝없이 토론 상대가 되어준 선·후배와 동료들의 얼굴들이 떠오른다. 떠나고 보니 재단 재직 시절 부족하지만 믿고 기회를 준 선배들과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응원해준 동료들 덕분에 이 판에서 생존하고 성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한 조직에 리더로 있다 보니 좋은 선배, 좋은 동료가 되는 것이 그냥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 관료적인 마인드 셋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혁신하고 성장하는 마인드 셋을 가진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모든 조직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의 친정인 재단의 조직문화가 더욱 성장 지향적으로 변화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좋은 선배, 좋은 동료 관계들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고윤정

부산 영도구 영도문화도시센터장. 국내 최초 도시 브랜드 세계디자인 어워드 4관왕, 문화돌봄으로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한 조직문화를 고민하고 있다.

감만동 블루스

글. 송봉근



2023 밴드 지도점검 스페셜 단독 콘서트 <어찌다 콘서트>

지난해 4월 부산문화재단 퇴사 후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술인으로 삶을 살았던 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재단에 입사하였고, 재단에서 근무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몸소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내 삶에서 가까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임을 발견하고 있다. 공원에서 또는 길을 가면서 미술관, 공연장에서 한 번씩 뇌리를 스치던 문장이 있었는데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이었다. 사업 기본 계획에 즐겨 사용하던 한 줄의 문장이었는데 정서적 안정감과 아름다운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예술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직장생활 가운데 퇴근(退勤)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있어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출근(出勤)과도 같은 단어였다. 마냥 설렌다고 말하기 애매한 두 단어이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휴식이라는 것을 찾고 싶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다.

어느 날 사내 밴드 동아리가 결성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때마침 밴드 동아리 섭외 부장님의 섭외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인생 락앤롤 아니냐는 한마디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가입을 했다. 멤버 한명 한명이 모여 어느 순간 6인조 밴드가 결성되었고 각자 포지션을 정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대학에서 베이스기타를 전공했기 때문에 일렉기타를 해야 된다는 참신한 논리를 펼쳐 주셨던 밴드 대장님의 설득 아닌 설득에 넘어가 생애 처음으로 일렉 기타로 밴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산 하나를 넘어 드디어 2022년 4월 부산문화재단 최초 사내 동아리가 결성되었는데 여전히 산 넘어 산이었다.

팀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들이 제안되었다. '지역개발채권' '어쩌다 밴드' '업무보고' '무밴드' 등등. 그때 6명의 귀를 강타했던 네 글자가 있었으니 '지도점검'이었다. 당시 5월에 있을 지도점검을 준비하며 겪었던 애환을 의식의 흐름을 따라 뱉어내던 팀원들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우여곡절 많았던 밴드의 이름은 그렇게 정해졌고 그렇게 우리들의 감만동 블루스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4월이다 보니 각자 맡은 사업들을 진행하라 5월 '지도점검' 준비하라 모이는 시간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먼저 첫 합주곡을 정했는데 Ben E. King의 Stand by me. 직역하면

‘내 곁에 있어줘요’라는 곡이었다. 선곡의 이유는 간단한데 코드 4개만 알면 연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첫 합주 일정을 잡고 시작한 첫 합주는 개성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소리답게 정말 제각각이었다. 무조건 풀어야 하는 영킨 실타래를 만난 기분이었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첫 합주를 했다.

존레논의 imagine을 두 번째 합주곡으로 연습하며 매주 모여 기량을 닦던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공연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우릴 섭외해 줄 곳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문화다양성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해 아쉬움이 가득 남았다.

이후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에 초청 받아 공연을 준비하며 사이의 ‘예술이야’를 밴드 사운드로 커버했었는데 곡을 선곡할 당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예술이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떠오른다.

돌연 보컬의 퇴사 소식으로 인해 밴드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새로운 보컬을 영입하며 지도점검의 시즌2가 시작되었다.

하반기가 될수록 각자의 업무가 바빠서 모이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모이면 여전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새롭게 피아노를 맡았던 박모 선생님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던 왕초보였는데 점심시간마다 감만 사랑방에 있는 피아노로 합주곡을 연습하며 합주를 준비해오는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열정에 기름 붓기라는 표현처럼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후 지도점검 단독 공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단독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30분 공연을 목표로 곡을 정하고 각자 파트를 익히며 연주를 가다듬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을 통해 어색하고 투박하지만 지도점검만의 사운드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희열이 있었다.

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밴드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내 소리가 음악으로 들리는지, 다른 사람은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만 귀 기울이면 충분히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 소리 혹은 상대방의 소리 크기를 높이거나 낮추어 보는 조정 시간을 통해 지도점검이라는 밴드 공연이 만들어졌다.

2023년 4월 18일 밴드 지도점검의 스페셜 단독 콘서트 ‘어쩌다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 4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던 나에게도 몹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공연 당일 잔디마당에 스피커와 악기를 세팅하고 공연을 시작하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스피커와 마이크 스탠드가 쓰러지고 비가 눈 앞을 가리는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웃으며 연주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첫 곡이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곡이었다. 많은 직원들이 함께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30분간의 스페셜 단독 콘서트를 마무리한 지도점검은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그날의 공연을 마무리했다.

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 부산문화재단은 참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1년 365일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재단 직원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송봉근

퇴근과 출근이라는 애매한 두 단어 사이에서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직장인이다.

할머니의 손편지 사연 하나



글. 김영숙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뭔가 여러 가지 조합이 느껴진다. 통합...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1인당 연 13만 원의(2024년 기준)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그 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분들로 정해져 있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재단 입사 첫해였던 2022년의 어느 날 아침은 유독 분주했다. 여러 번의 만남 약속 취소로 오늘도 변경될까 싶어 생겨난 조바심과 함께 서둘러 동료와 약속 장소로 나섰다. 그날, 그 만남의 주인공 사연 하나를 전한다.

재단 사무실에서 택배 상자 하나를 받은 일로 시작된다. 수신인은 따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얼마 전 이벤트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기 공모'에 참여한 분들에게 보내드린 기념품 상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배송지가 잘못되어 반송된 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 중, 같은 시기에 진행한 행사 때 판매했던 물품과 <DIY공예> 기념품으로 배부했던 조립품이 완성되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이용지원서비스 <누리책방, 누리공방> 행사에서 구매한 도서를 담아드렸던 에코백, 행사 현장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부채 꾸미기 등의 물건들이었다. '이게 왜 한 상자에 다 들어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본 상자 속엔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다. 열어보니 서툴지만, 꼭꼭 정성스레 써 내려간 손 편지와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발신자분을 찾아 전화 연락부터 드렸다. 전화를 받으신 분은 할머니였다. 그는 “최근 3년간 몸이 계속 안 좋아 바깥 외출도 잘 안 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있었는데, 그날에는 좋아하는 책도 사고, 미술체험도 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이젠 힘들고 손도 떨리네요”라고 하셨다.

그해 연세가 82세로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하고 계신 어르신이었었는데 초기 치매 증세와 심부전을 앓고 계신데다 코로나19로 기력이 많이 나뻐는데, 재단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이용 지원서비스 행사에 참여하신 이후, 다른 분들과 이 행복감을 나누고 싶어 하신 것이다.

보내주신 돈을 되돌려드리려 어렵사리 약속을 잡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 어르신께서는 “내가 그리 보낸 건 그때 복지관 앞에 와서 한 것처럼 또 그 행사할 때 필요한 거 사서 쓰세요. 내 성의예요. 안 받으면 내가 더 서운하고, 받아줘야 내가 고맙지요”라고 하셨다.

팀에서는 할머니의 성함으로, 할머니께서 바라신 마음을 담아, 소박하지만 소중한 5만 원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단 후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사업 담당자로서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다. 할머니에게 즐거운 위로가 된 시간을 커다란 사랑으로 돌려주셔서 사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숙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담당자 3년 차.

세계 종합 예술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 다녀오다

글·사진. 김희선



파라마운트 스폿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봄에 개최되는 초대형 축제에 다녀왔다.

일명 '사바사'라고 불리는 본 축제는 1987년 지역 음악축제(Music)로 시작해서 영화(Film)와 기술(Interactive) 장르를 차례로 도입하며 성장했다. 입장료가 200만 원에 달함에도 작년 기준 126개 국가에서 345,066명의 참가자가 찾는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 5,043억 원의 경제효과를 낸 비결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중심을 두고 찾아다녔다.

SXSW의 매력(Attraction)

SXSW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콘퍼런스이기 때문이다. (※ 작년 기준 콘퍼런스 1,484개) 이번 연도 주제는 다양성(여성), 기술(보안), 문화(소셜미디어), 첨단기술(AI) 등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를 담당했다. 2016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술 부문 기조연설을 하면서 콘퍼런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두 번째 이유는 수천 개가 넘는 행사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내 경험상 이처럼 다양한 행사 중에서 모래 속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본 행사 전용으로 개발된 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SXSW GO 앱을 사용하면 모든 행사 계획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일종의 '좋아요' 기능을 통해 일정 관리 또한 가능하다. 또한, 행사 일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2안, 3안의 촘촘한 일정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이유는 네트워킹이다. SXSW Social 연결 동의를 한 일부에게 참가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된다. 메신저 기능을 통해 참석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나도 이 기능을 사용하여 영국과 독일 기조발제자와 연락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를 얻었다.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네트워킹이 최대 강점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행사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는 천금 같은 기회인 것이다.

요즘 타 지역 축제나 세계 축제를 바라볼 때 공통적으로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는 친환경적이다. SXSW는 페트 배너 대신 골판지 배너를 사용하였고, 현수막 대신 LED 전광판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프로그램북이나 리플렛은 등록 부스에서 한 번 제공되고, 행사장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1. SXSW 페인행사장 2. 핀웬시정 문화창작국 미팅 3. SXSW 비표(벤티지)

마지막으로 매일 방문했던 XR체험관 내용을 빼놓을 수 없다. 매일 11시 개장 전에 줄을 서고 들어가면 예약이 바로 다 차버릴 만큼 인기가 높았다. XR의 지대한 발전을 통해 생생하게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대만의 현대무용단체 Meimage Dance가 무용을 기반으로 개발한 VR 콘텐츠를 체험하며, 또 하나의 공연 유통 방법을 경험했다.

SXSW의 성공요인(Success)

3월 10일 오스틴컨벤션센터에서 SXSW 사무국과의 미팅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래밍 수석인 휴 포레스트, 글로벌 세일즈 디렉터인 닐 모나카, 브리타니 마티스를 만났다. 10년 이상 한 회사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창의성(Creativity)'이었다. 트위터,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서비스가 SXSW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독창적인 사람들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사실에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Forward)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이상 걸으며 땀으로 인연을 송골송골 맺고 돌아왔다. 저녁도 못 먹고 대표님과 타코 하나를 나눠 먹으며 뛰어다니는 경험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2024. 10. 4. ~ 10. 8.)에 녹여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이어나가고 싶다.

김희선

예술경영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부터 재단 입사를 꿈꿨으며 꿈을 이루는 2년이 조금 넘었다.

이번 연도 목표를 이루고자 매일 영어 숙제에 시달리고 있는 열정 가득한 사람.

★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행사 일정입니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4. 6.(토) / 4. 27.(토) / 6. 8.(토) / 6. 15.(토) / 6. 22.(토)
용두산공원

2024년도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 4. 21.(일) ~ 4. 28.(일)
부산시청 제3전시실

부산여류전 50주년 기념전
-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과 동행하다

★ 4. 22.(월) ~ 5. 20.(월)
매주 월요일(5. 6.(월) 제외)
장안빌딩 2층

또따또가클래스 : 호기심의 책장

(B) 4. 22.(월) ~ 5. 31.(금)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2024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기획전시

★ 4. 23.(화) / 4. 30.(화) / 5. 4.(토)
미진빌딩 4층 501호

또따또가클래스 : 달달한 한입

★ 4. 23.(화) ~ 5. 7.(화) 매주 화요일
미진빌딩 5층 601호 + 원도심 일대

또따또가클래스 : 나를 찾는 사진기행

★ 4. 23.(화) / 5. 7.(화) / 5. 21.(화) / 6. 4.(화)
장안빌딩 4층

또따또가클래스 : 책만들기 수업 <산:책>

★ 4. 23.(화) ~ 4. 30.(화)
하늘바람 소극장

창작희곡 살리기 프로젝트 - 일곱 번째
심상교 작 <가판대2>

★ 4. 24.(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효근의 k-아트팝 가곡의 밤

★ 4. 25.(목) / 5. 2.(목)
예선빌딩 7층

또따또가클래스 : 영화음악과 음악영화의 세계

★ 4. 25.(목) ~ 5. 9.(목) 매주 목요일
장안빌딩 4층

또따또가클래스
: 고단해도 소중한 나의 일상 기록하기

★ 4. 25.(목) ~ 5. 23.(목) 매주 목요일
장안빌딩 4층

또따또가클래스 : 가장 가볍고 유연한 이야기

(B) 4. 26.(금) ~ 4. 27.(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 4. 27.(토) ~ 5. 25.(토) 매주 토요일
장안빌딩 2층

또따또가클래스
: 풍경수집 - 오늘 내가 만나는 원도심

★ 4. 28.(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제56회 정기연주회

(B) 4. 29.(월) ~ 6. 28.(금)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창의문화촌 상상갤러리 2회차

★ 4. 30.(화)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제14회 정기연주회

★ 4. 30.(화) ~ 5. 19.(일)
금련산역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

제12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 5. 1.(수) / 6. 5.(수)
영광도서 문화홀 / 인본사회 연구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림 콘서트

B 5. 1.(수) ~ 5. 24.(금)
F1963
2024조선통신사 축제 - 세계기록유산 테마 특별전

B 5. 3.(금) ~ 5. 5.(일)
광복로 일원, F1963, 조선통신사역사관,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등
2024조선통신사 축제

★ 5. 4.(토) ~ 6. 8.(토) 매주 토요일
장안빌딩 2층
또따또가클래스 : 캔버스에 유화

B 5. 8.(수)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상상데이

B 5. 8.(수) ~ 5. 22.(수)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1
Lin Yu Sheng**

★ 5. 9.(목) ~ 5. 10.(금)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6회 정기연주회

B 5. 10.(금) ~ 5. 12.(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찾아가는 누리마켓 X 어방축제

★ 5. 10.(금) ~ 5. 12.(일)
원곡 예술관
사람의 무늬를 찾는 무대 [아 동학 이장태 장군]

B 5. 11.(토) ~ 5. 19.(일)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개수작(개인의 수작) 클래스 1회차 - 드림 클래스

★ 5. 13.(월) ~ 5. 21.(화)
공간 소극장
등등 낙랑동

★ 5. 16.(목) / 6. 20.(금)
남포문고 책138
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 특(talk)! 특(talk)!

B 5. 18.(토)
백양초등학교 운동장
찾아가는 누리마켓 X 만덕지기축제

★ 5. 18.(토) / 6. 15.(토)
장안빌딩 4층
또따또가클래스 : 예술하는 인공지능

B 5. 19.(일) 예정
F1963 스퀘어
F1963 오픈스퀘어

★ 5. 21.(화) ~ 6. 25.(화) 매주 화요일
장안빌딩 4층
또따또가클래스 : Senses of media art

B 5. 23.(목) ~ 5. 25.(토)
부산 리발스 호텔, 두구, 온그루 등
2024 부산문화컨퍼런스 III

★ 5. 24.(금)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장
소중함의 발견, 클래식으로 보는 어린왕자

B 5. 31.(금) ~ 6. 14.(금)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2
김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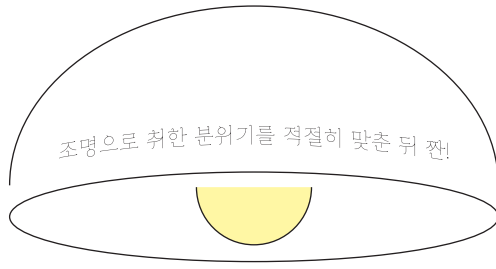
B 6. 1.(토) ~ 6. 30.(일)
F1963 석천홀
F1963 지역예술가 협업 기획전시

★ 6. 14.(금)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
시민문예강좌 - 작곡문인재조명

★ 6. 21.(금) ~ 6. 23.(일)
민주공원 소극장
중력의 무게

B 6. 21.(금) ~ 7. 5.(금)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3
이영아**

공감 그리고, 너머



1

파리지앵이 시원하게
말해주는 다이키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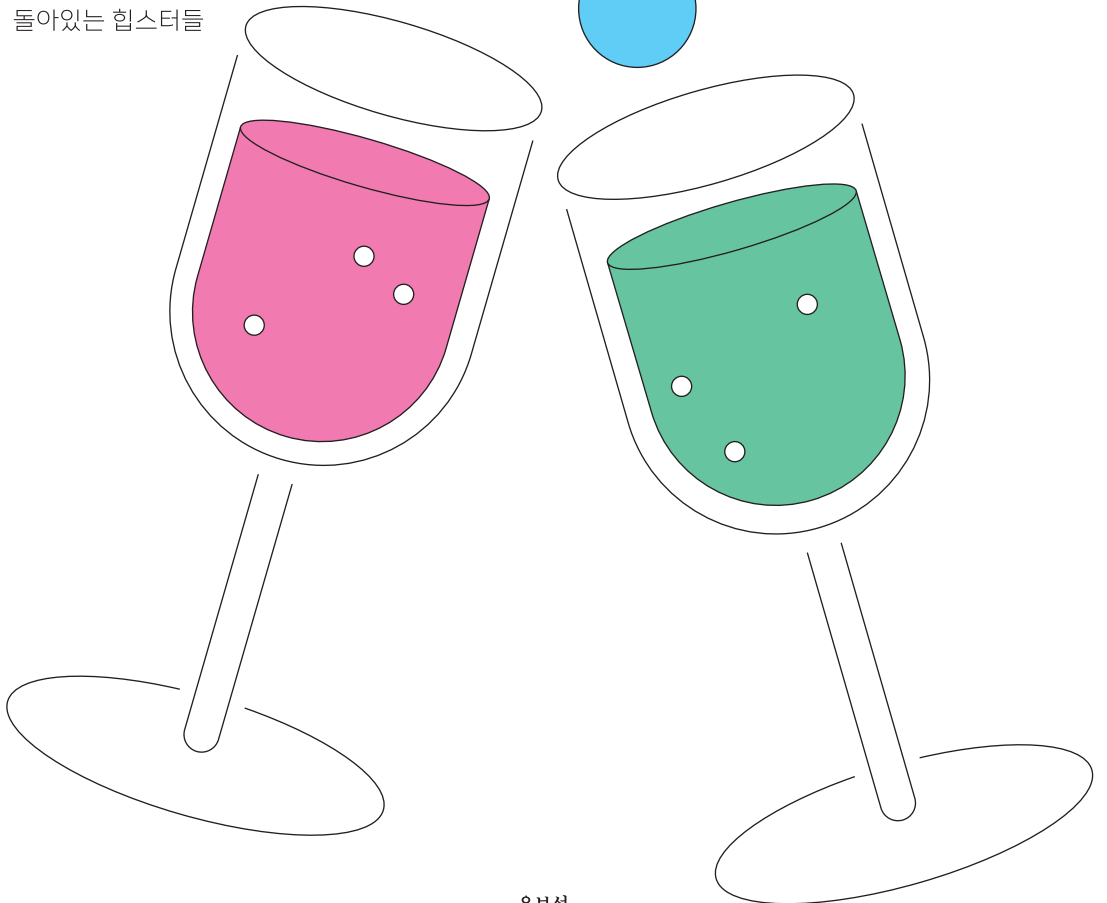
영화광

2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돌아있는 힙스터들

3

자갈치



윤보성

199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2017년 시인수첩을 통해 등단, 2022년 시집 『망현실주의 선언』을 출간했다.

파리지앵이 시원하게 말해주는 다이키리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었어

럼과 라임을 사오겠다던 녀석은 늦는다면서
제일 먼저 와 해먹에 누워 텅굴거리며 명상한다

집주인 없는 집에서 우린
LP로 철 지난 음악 틀면서 둥칫 둥칫 춤추면서

초빠이 헤밍웨이가 좋아했던 술이랍니다 여러분
흑설탕을 녹이기 위해선 수수께끼를 휘저어야만 하죠

조명으로 취한 분위기를 적절히 맞춘 뒤 짤!
취업은? 이직은? 퇴사는? 연애는? 으음

당장 다 말할 필요는 없겠어

다시 학생이 되고 싶어? 교환학생이 되고 싶어?
어쩔 이상한 세계와 교환된 채 꽤나 방치됐으면 해

회회거리며 회안해질 요량으로 획 굴러갈 테니
자신만의 시차로 흠어지기 전에 우리, 잘 봐!

이른테면 퍼니스트 홈비디오 같은 시를 써볼게

대충 1\$짜릴 찢는 판토마임 같은 거
담배 피우며 림보하는 바보짓

어떤 의견에 대한 토론보다는
여느 믿음에 대해 DM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누구 하나 소외될 리 없거든요
모른다는 걸 몰라도 몰상식하지만 앓다면야

소리 죽인 채 돌아다니기 맨발로 방바닥 찹찹
다른 게임 히히 틀린 게임

잠든 채 잔을 부딪히는 친구와 타인들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돌아있는 힙스터들

『세상의 모든 종말론展』

(아마도) 멋지게 전시회 입장

피난유도등까지 없애버린 공간

아무것도 없는 전시실이야말로 느낌 있지 않아?

서로를 작품인 듯 구경하다가도

잘나신 작가님은 어디에?

아니, 나이스한 오지랴이란 게 있겠어?

응? 결혼은 싫어 (애는 싫진 않지만)

물려받을 돈 없인 철들고 싶지 않거든

그래?

전시 준비 중인 걸 전시하는 건 좀 뻘한데

뻘뻘하기까지 하네

흰 천으로 감싸려면 제대로 좀 하던가

흰 벽은 뭐든 갖다 걸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해한데?

아니 무엄하다 해야 하나, 무료하다 해야 하나?

복도에 멍하니 있는데 모두가 동시에 주시한다
너는 너를 무심코 바라보는 이들을 깨무시한다

무서운 일이 터졌을 땐 괜히 흥분되지 않아?
뉴스에 나올만한 건
밈으로 유행하는 건
전부 남의 이야기 같은데

다 헛소리, 재미없게

세상만사 전부 예술로 취급되는 날이 온다면
아름다워지려 무슨 짓거리인들 해도 될까?

(다들) 자존심에
뼈뚫한 태도로 대하면서 아닌 척
점잔 빼며 복제품의 뒷면만 바라보는 척

여전하네
애초에 지구상 어디에도 지속 가능한 건 없었거든
누구나 말은 잘해요
듣질 않아서 그렇지

즐겁던 한때가 가고 예정된 그날이 오면
너는 네 사람만 지키려고
문을 걸어 잠글 결심에
광적으로 심취하시겠지

그래서 뭘 감상했는지 기억에 남는 건 있어?
딱히, 그래도 괜찮으시죠?

퇴장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쪽도 아니라는데……

자갈치

세상의 모든 물고기들이 씨가 마른다면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시장 저 시장을 뛰어다니며 달려화 유료화 엔화 위안화를 호객행위 하듯 흔들며 최후의 건어물을 차지하려 아귀다툼한다면 참 볼만하지 않겠어요? 브레인 포그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투쟁도피반응에 몰입해야 합니다 부득불 당신의 스트레스를 신뢰하세요 군중 속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할 방법은 없어요 그저 모두를 사랑하거나 모두를 미워할 수밖에요 그때 나는 자갈치의 명물 서정다방에서 친구들과 친구들의 친구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질 않아 수현과 함께 거국적으로 술이나 마시러 갔죠 한밤의 포장마차에 걸터앉아 고갈비와 C1소주를 먹고 마시며 전 애인과 애인의 애인들을 추억하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있던 관광객의 인공지능 번역기가 애살 있는 목소리로 멸종된 문어 숙회의 암시장 가격을 물어보다 갑자기 우리에게 사변적인 씹소리를 지껄이지 않겠어요? 현실을 드라마처럼 꾸며야 합니다 새파랗게 질린 세트장 한가운데에서 실시간으로 밌화된 선동구호를 복제당한 동일인물에 부여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팔지 않는 생존키트에 새겨진 바코드처럼 우아하게 말이지요 이곳엔 마가 꺾거든요! 영화의 도시는 다 옛말이라니까요? 이제 이곳을 영락의 도시라 부르는 게 어떠신가요? 듣자 하니 우릴 아주 잘 안다는 듯 이야기하길래 뭐라 한마디 하려는데 옆을 보니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우린 굴하지 않고 술잔을 부딪히곤 장광설을 이어갔죠 어찌면 짜잔! "무한생명연장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우린 지금처럼 한량일 테지만 뭐 우짖니까? 아니 어차피 20년? 30년? 안에 일자리란 일자리는 다 사라질 거고 생업은 폐업할 텐데 고마 그땐 오늘의 고민 따윈 부질없지 싶은데 마 안 그럴겠어예? 해무에 휩싸인 영도대교를 향해 하늘에서 유명선의 닻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골목길에서 쓰러져 자던 뱃사람들은 선지구밥집으로 들어가는군요 우리는 취하다 만 채 스근하게 바다를 보러 가고요 대왕고래 무리가 유성우처럼 상공을 뒤덮고 있어요 아름답네요 죽은 아빠와 술 한잔 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워요

영화광

영화를 보다 보면 말입니다 인간이란 종자는 참 솔직하지를 못해요 미생물처럼 단순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해 아래에는 새로움이 없다고요? 그 대사야말로 육천 년 묵은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지만요 희로애락은 등장인물 중에서 재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법칙은 그 누구도 어찌지를 못하겠죠 세상을 냉소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것 빼고 전부 달라졌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진짜 불만만 게 없어요 본 걸 또 보고 또 보다 보니... 환멸에 비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클리셰적인 느낌? 느낌적인 컬트? 컬트적인 클리셰? 예컨대 영화관을 찍는 영화관을 찍는 영화가 상영될 때 관객들의 무표정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무표정을 바라보는 사물의 무표정들 검은 화면은 어디에나 있어요 감독의 시대착오적 취향을 불평하던가 평론가의 정치적 성향을 불매하세요 편집점을 벗어난 뒷담화는 상업성이 부족하군요 불이 켜지면 관객은 감독으로 감독은 관객으로 자리를 바꿔주시겠어요? 여기도 짬뽕이고 저기도 패러디니까 심미안을 영화롭게 하려 무엇을 더 사랑하고 미워할 수나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 없는 연애를 그리워하며 고전 영화를 다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마주된 거장의 상징들은 하나같이 아득해요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라 아날로그 필름은 보기 좋게도 녹이 슬었네요 오늘은 내심 바라던 최후의 날이므로 크레딧은 끝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픽션은 아름다운 엔딩에 목매고 다큐멘터리는 추악한 오프닝에 목이 메죠 피로 시작하는 시퀀스엔 회한이 없고 눈물로 끝나는 푸티지엔 신비가 없겠죠 인공위성으로부터 동시 상영되는 영화에는 실시간이 실시간으로 등장하는군요 상영 금지된 아우라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치사량까지 느끼셨나요? 곧 죽어도 지켜야 할 톤 앤 매너 세상이 전지적으로 되감기 될 테니 주위의 자유전자들을 꼭 붙잡으십시오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재단 기념품 증정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후원혜택 2

일반회원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연간회원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평생회원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단체회원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홈페이지

www.bscf.or.kr ▶ 열린광장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전화

재정관리팀 051-745-7253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감 그리고>를 웹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통권

52호 정기간행물(부산남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4. 4. 30.

발행인

이미연

편집위원

오성은 박보은

편집기획

기획홍보팀 김정 강보현

표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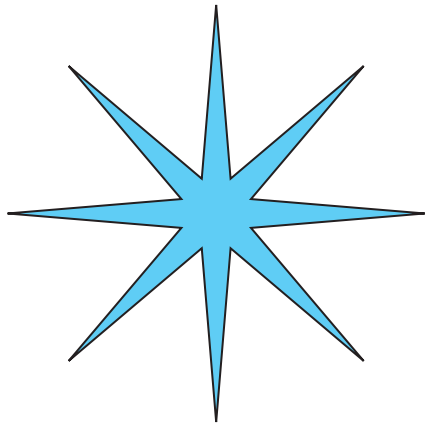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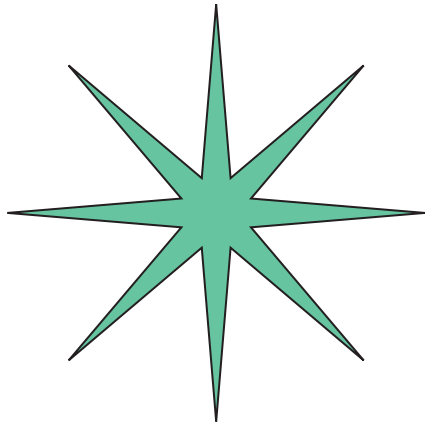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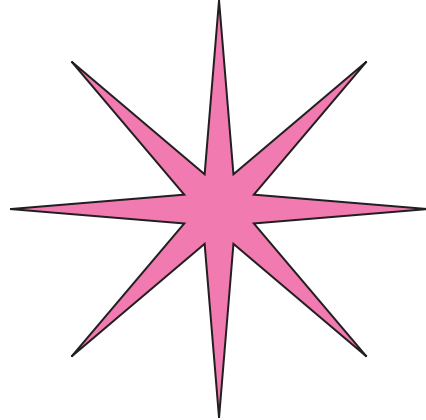
박보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www.bscf.or.kr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글꼴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